

‘성우어벤져스 일곱 번째 멤버를 찾아라’ 목소리 연기 녹음 파일 제출용 대본

주의사항

1. 아래 대본을 녹음하기 전, 본인의 목소리로 음mm 닉네임, 본인의 나이대, 성별을 말씀해주세요.
예) 남도일 30대 남자입니다.
2. 녹음은 어떤 효과음이나 배경 음악 없이 본인의 목소리만을 녹음해야 합니다.
3. 녹음 파일 형식은 .wav 혹은 .mp3 만 가능합니다.
4. 본인의 성별에 맞는 대본 3개(젊은, 중년, 노년)를 모두 다 녹음해야 합니다.

#남성

1) 젊은 남성 (명랑 쾌활한 톤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먼저 걸어간 길은 안전하고 검증된 길이지만 저는 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조심스레 한발 내딛는 순간, 불안함과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 중년 남성 (비열하고 화를 내는 톤으로)

니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어쭙 내가 우습게 보여?

니들이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먼. 니들 멋대로 내뱉는 말과 행동엔 책임이 따라야 해,

세상은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가 않아 .

자, 니들 중에 어떤 놈이 먼저 나한테 타당한 설명을 해봐.

3) 노년 남성 (품위 있는 신사 톤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무슨 일을하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까? 입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에도 뭔가를 찾아 나서는 내 자신이 한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손주들이 찾아오면 용돈이라도 한푼 쥐여주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방법이 없구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성

1) 젊은 여성 (명랑 쾌활한 톤으로)

한발 두발 세발!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내가 지금 더디게 가고 어렵게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폼나게 회사 신분증을 목에 걸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들고 당당하게 거리를 걸어다닐 거야.

그러면 거리에 비둘기들이 파다닥 날아가면서 내 기분을 맞춰줄 거고! 자, 지켜보라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2) 중년 여성 (짜증 나는 신경질적인 톤으로)

내가 언제 짜장면을 시켰어? 나는 분명히 짬뽕을 시켰다고!

뭐야 주문표를 보라고?! 내가 직접 쓴 글이라고?! 어디 봐봐! 나는 이렇게 글씨를 날려 쓰지 않아. 정자로 또박 또박 적는다고!

야! 사장 나오라고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한테 이따위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니들 오늘 영업정지 까지 각오해!

3) 노년 여성 (어머니 같이 인자한 톤으로)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갔어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혹시라도 산에서 받아온 물이 효험이 있을까? 해서 온 거예요.

산새가 지저귀고 다람쥐들이 날쌔게 돌아다니는 걸 보니 나 혼자 산에 온 게 미안해지네요.

아픈 사람한테 약수물만 아니라 산에서 내가 봤던 걸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데 이제 나도 눈이 침침하고 무릎이 아파서 산길을 걷는 게 쉽지가 않네요.

산은 언제나 말이 없이 우리들을 품어주는데 내가 아픈 사람한테 그러지를 못해서 미안해요.